1부 계시 —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 성경론 4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 사건, 음성, 선지자와 사도

프레임 4부 12장 하나님 말씀의 매체 · 프레임 14장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 프레임 15장 선지자와 사도 · 프레임 16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 워필드 1장 계시에 관한 성경적 개념 3~5절(계시의 과정·방법·성경이 말하는 계시) ·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1부 4장 계시 '기적, 언어, 역사'([102]~[105]) · 신앙고백서 1.1 · 신앙고백서 1장 1.1

> ❓ **하나님이 직접 말했다는 걸 대체 어떻게 알아? 결국 다 사람이 한 말 아니야?**

## 🧭 흐름 한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거의 언제나 창조된 매체, 곧 사건·말·사람을 쓰신다. 시내산의 음성조차 공기와 히브리어를 거쳤다(프레임). 사건은 말이 있어야 뜻이 드러나고, 말은 사건을 풀이하고 보존한다. 워필드는 행위만으로는 계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바빙크는 사실과 의미를 떼어 낼 수 없다고 말한다. 시내산 이후 하나님은 백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지자와 사도의 입에 말씀을 두셨다. 사람의 입을 거쳐도 그 말씀의 권위·권능·임재는 줄지 않았다(프레임·워필드).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나”라는 물음에, 표적과 성취는 거짓을 걸러 내는 보조 기준일 뿐이고 최종 확신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밝히시는 데서 온다(프레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존·전파·확립·위로를 위해 글로 남기셨다(신앙고백서 1.1·프레임 16장).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는 성경의 모양으로만 있다(바빙크·워필드).

## 📜 절별 정리

### 📜 1. 하나님은 매체를 거쳐 말씀하신다 — 사건, 말, 사람 (프레임 12장)

하나님은 거의 언제나 창조된 매체를 쓰신다. 가장 직접적으로 보이는 시내산 음성도 공기를 타고 귀에 닿았고,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피조물의 언어인 히브리어였다. 매체는 사건·말·사람 셋이다. 대체로 하나님의 능력·권위·임재와 짝을 이루지만, 실제로는 어느 매체에든 셋이 다 담긴다. 세 매체는 서로 맞물려 서로를 해석하므로 골라 믿을 수 없다. 말씀을 의심하면 그 말씀이 전하는 사건과 인물까지 흔들린다. 그러니 '사람을 거쳤으니 틀릴 수 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인간됨이 곧 오류라면 모든 계시가 틀렸을 것이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도 오류가 없으셨다. 매체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르신 도구다.

1. 매체 = 말이 마음에 닿게 하는 수단
2. 시내산 음성도 공기·히브리어를 거쳤다
3. 매체는 사건·말·사람 셋이다
4. 셋은 서로를 해석하니 골라 믿을 수 없다
5. 매체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 **신명기 4:12**
> 시내산에서 형상 없이 '음성'만 들렸다. 가장 직접적인 계시도 소리라는 매체를 썼다(프레임 14장 인용)
>
>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 **히브리서 1:1 ★**
>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매체가 여럿이라는 큰 틀이다. [바빙크·신앙고백서 1.1 증거 구절 공통. 프레임 12장 정리본에는 정리자 보충]

> **베드로전서 2:22**
> (정리자 보충)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인간됨 = 오류'에 대한 프레임의 셋째 답
>
>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 📜 2. 사건은 말이 풀고, 말은 사건을 붙든다 (프레임 12·14장 · 워필드 1장 3절 · 바빙크 '기적, 언어, 역사')

프레임은 사건 계시와 말 계시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본다. 사건도 하나님의 능력·권위·임재를 실어 오기 때문이다. 다만 둘이 하는 일은 다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받았다. 반대로 말은 사건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 곧 사건의 뜻을 풀이하고 기록되어 대대로 남는 일을 한다. 프레임은 사건을 전하지 않는 말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고도 말한다. 워필드는 반대쪽 극단을 친다.
당시에는 '계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만 온다'는 주장이 퍼져 있었다. 워필드는 설명 없는 행위는 지식을 낳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행위에 말을 더하셨고, 그 말 자체가 구원 행위라고 답한다. 바빙크는 또 다른 극단을 막는다. 기적 이야기에서 역사적 사실은 버리고 종교적 의미만 남기자는 시도(편집자 주는 불트만·슈트라우스의 비신화화를 예로 든다)를 거부하고, 기적은 계시만큼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세 사람의 말을 합치면 이렇다. 말 없는 사건은 뜻을 잃고, 사건 없는 말은 알맹이를 잃는다.

1. 사건도 능력·권위·임재를 전한다
2. 말은 사건의 뜻을 풀고 오래 보존한다
3. 워필드: 설명 없는 행위는 지식이 못 된다
4. 바빙크: 사실 빼고 의미만? 거부한다
5. 말 없는 사건도, 사건 없는 말도 없다

> **요한복음 17:3**
> (워필드, 장절 없이 인용)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에 지식이 필요하므로 말 계시가 필요하다
>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마태복음 11:3-5**
> (바빙크) 예수님의 기적은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증거다. 사건과 그 뜻은 함께 간다

요한에게 알리되 [5]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고린도전서 15:3-4**

(프레임 12장 정리자 보충)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이 "성경대로"라는 말로 해석된다

[3]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다." — 워필드

## 📜 3. 시내산의 음성 — "직접 들으면 믿겠다"는 착각 (프레임 14장)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 중재자 없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말 계시다. 그 본보기가 출애굽기 20장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시고, 자신을 애굽에서 건져 내신 분으로 밝히시고, 섬기는 법을 명하셨다. 그런데 백성은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셨고, 그 뒤 계시는 주로 중재자를 거쳐 왔다. 그래서 프레임은 "직접 들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 음성은 피조물을 썼지만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다. 능력·권위·임재가 모두 드러났고, 십계명은 '열 가지 제안'이 아니라 순종할 명령이었다. 시내산 이후에도 모세는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고, 세례와 변화산에서는 하늘의 음성이 공개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프레임은 더 중요한 사실을 짚는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이셨다.

1. 하나님의 음성 = 중재자 없는 직접 말씀
2. 직접 들은 백성은 두려워 중재를 구했다

4. 음성의 권위는 절대적, 순종이 전부다

5.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이셨다

**출애굽기 20:2**

하나님이 자신을 출애굽의 구원자로 밝히심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18-19**

백성이 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라고 함. 직접 음성의 무게(프레임 14·15장 모두 인용)

18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신명기 5:28-31**

하나님이 그 요청을 받으심. 이후 중재 계시가 중심이 됨

28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9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30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31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마태복음 17:5**

변화산의 음성, “그의 말을 들으라”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명하신 것만 말씀하심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 📜 4. 선지자 —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두신 사람 (프레임 15장 · 워필드 1장 4절)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점술을 금하시고 “모세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신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라고 하시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직접 벌하겠다고 하신다. 그러니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 출애굽기 4장에서 말이 어눌하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고 물으신다. 하나님→모세→아론→백성으로 내려가도 권위는 줄지 않는다. 예레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 손을 대고 말씀을 두신다. 워필드도 같은 본문들을 계시의 기본 모델로 쓴다. 선지자(히브리어 '나비')는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예언은 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된다. 동시에 워필드는 두 가지 안전장치를 단다. 첫째, 선지자는 정신이 꺼진 황홀경에 빠지지 않았고 지성이 깨어 있었다. 둘째, 성령에 '실려' 말했다는 수동성은 메시지를 지어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선지자마다 말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이 도구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 본성대로 쓰신 흔적이다. 모세는 대면 계시라는 남다른 영예를 누렸지만 권위가 더 높았던 것은 아니다. 꿈으로 받은 계시도 낮은 등급이 아니다. 계시의 가치는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1. 선지자 =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두신 자
2. 입을 지으신 분이 할 말을 가르치신다
3. 사람 입을 거쳐도 권위는 줄지 않는다
4. 수동성 = 지어내지 않음, 정신은 깨어 있음
5. 개성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구의 결

**신명기 18:18 ★**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선지자의 정의 [프레임 14·15장·워필드 공통]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출애굽기 4:11-12 ★**

입을 지으신 분이 할 말을 가르치심 [프레임·워필드 공통. 워필드는 '인간 언어로는 못 전한다'는 반론에 대한 답으로도 씀]

**예레미야 1:9 ★**

입에 손을 대고 말씀을 두심 [프레임·워필드 공통]

**민수기 12:6-8 ★**

꿈·환상과 모세의 대면. 방식의 차이일 뿐 권위의 차이는 아님 [프레임 14장·워필드 공통]

**베드로후서 1:20-21 ★**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에 실려 말함. '지어내지 않음'의 핵심 구절 [워필드 핵심 구절, 바빙크도 같은 장에서 인용]

## 📜 5. 사도 —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으셨다 (프레임 15장 · 워필드 1장 4절)

프레임은 사도를 선지자의 계승자이자 그 이상으로 본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주셨지만 책은 한 권도 남기지 않으셨다. 그러면 승천 뒤에 그 말씀을 어디서 찾는가? 답은 사도들이다. 예수님은 성령이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과거),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현재), 장래 일을 알리시겠다고(미래) 약속하셨다. 바울은 자기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성령은 깨달음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칠 '말'까지 주신다.
워필드는 이런 기록 계시의 방식을 '협력 작용'이라 부른다. 사람의 연구·추론·감정 같은 개성 전체가 쓰이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결과물은 참으로 인간적이면서도 사람만으로는 낼 수 없는 초자연적 산물이 된다.
워필드는 성령을 사람의 모자란 부분만 메우는 보조자로 낮추지 말라고 경고한다.

1. 사도 = 선지자의 계승자이자 그 이상

4. 성령은 깨달음과 '말'까지 주신다

5. 협력 작용: 참 인간적이며 초자연적

**요한복음 14:26**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프레임 15·16장)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13-14 ★**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리시고, 그리스도의 것을 취해 알리심 [프레임·바빙크 인용, 워필드도 16:14-15를 암시]

**고린도전서 2:10-13 ★**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과 그것을 말할 '말'까지 가르치심 [프레임 2:10-13, 워필드 2:13, 바빙크 2:11-12 — 세 책 공통]

**고린도전서 14:37**

바울의 편지는 주의 명령. 협력 작용의 결과물도 하나님 말씀(워필드)

>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갈라디아서 1:11-12**

복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음(프레임)

> 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사도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프레임)

>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귀중한 말씀을 찾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사도들이다.” — 프레임

### 📜 6. 진짜인지 어떻게 아나 ① — 표적과 성취는 거짓을 거를 뿐 (프레임 14·15장)

프레임은 남은 문제가 식별 하나뿐이라고 말한다. 거짓 영,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실제로 있다. 그런데 성경은 식별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시내산에는 천둥·나팔·흔들리는 산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의 만남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었다.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소리'로 오셨다. 사탄도 기적을 일으킨다.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으리라고 하셨다. 신명기 18장이 주는 두 표지, 곧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과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거짓을 걸러 내지만 참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요나의 니느웨 예언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참 예언도 있다. 프레임은 심판 예언에는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언약의 조건이 깔려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기적과 성취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 주는 경고등이지 최종 잣대가 아니다.

1. 성경은 식별법을 체계적으로 주지 않는다
2. 표적은 늘 따르지 않았고 사탄도 흉내 낸다
3. 신명기 18장 표지는 거짓만 거른다
4. 심판 예언엔 '회개 않으면'이 깔려 있다
5. 기적은 경고등이지 최종 잣대가 아니다

> **신명기 18:20-22**
> 거짓 선지자의 두 표지, 다른 신의 이름,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

[20]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요한일서 4:2-3**

첫째 표지의 신약판: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가(프레임 각주)

[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열왕기상 19:12**

바람·지진·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현상은 기준이 아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데살로니가후서 2:9**

사탄도 기적을 행한다. 기적은 확신의 뿌리가 될 수 없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누가복음 16:31**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부활을 봐도 믿지 않는다(프레임 15장)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레미야 18:5-10**

5 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7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10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요나 3:4-10**

"사십 일이 지나면"이라는 예언과 니느웨의 회개, 재앙을 거두심

4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 옷을 입은지라 6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7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

### 📜 7. 진짜인지 어떻게 아나 ② —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다 (프레임 14·15장)

프레임의 결론은 이렇다. 하나님은 듣는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친히 밝히시며, 이 일도 계시의 일부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삭을 데려오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illegible] 하나님은 말씀하신

주권적이시다. 마태복음 24:24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는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한 말이다. 택함받은 사람은 끝내 속지 않는다. 확신이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 눈을 열어 참 예언의 표지를 보게 하신다. 그리고 단순한 개연성을 넘어 하나님의 스스로 증언하는 음성을 알아보게 하신다. 그렇다고 혼자만의 확신은 아니다. 프레임은 예언을 공동체가 함께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도 붙든다. 이 원리는 음성·선지자·성경 모두에 적용되며, 프레임은 이것을 뒤의 성령의 증언(42장)과 말씀의 자기 확증성 논의로 잇는다. '순환 논증'이라는 비판에는 이렇게 답한다. 어떤 체계든 궁극적 기준은 결국 스스로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1. 하나님이 듣는 이에게 친히 신원을 밝히신다
2. 확신시키는 일에도 하나님은 주권적이다
3. '할 수만 있으면' = 택자는 끝내 안 속는다
4. 성령은 표지를 보게 하고 개연성을 넘게 한다
5. 궁극적 기준은 어디서나 스스로를 입증한다

> **마태복음 24:24 ★**
> “할 수만 있으면”은 실제와 반대되는 가정. 택자는 끝내 속지 않는다 [프레임 14·15장 반복 인용, 바빙크도 거짓 표적의 예로 인용]

> **데살로니가전서 1:5**
>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확신은 성령에게서 온다(프레임 15장)
>
>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 **고린도전서 14:29**
> 예언은 다른 이들이 분별해야 한다. 확신에는 공동체의 분별이 따른다(프레임 15장)
>
>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설득의 영이다.” — 프레임

## 📜 8. 왜 글로 남기셨나 — 보존·전파·확립·위로 (신앙고백서 1.1 끝 · 프레임 16장 · 바빙크)

신앙고백서 1.1은 이렇게 고백한다.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교회에 그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 확실히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다. 프레임 16장은 같은 결론을 성경의 흐름으로 보여 준다. 계시는 처음부터 남겨지도록 주어졌다. 노아의 제단과 무지개, 아브라함의 제단, 야곱의 돌기둥이 그 증거이고, 언약은 가족과 세대와 맺어지므로 보존의 통상 수단은 기록이다. 신약에서도 복음은 성부→성자→사도→교회로 '넘겨진' 내용이며, 바울은 말로나 편지로 받은 것을 굳게 지키라고 한다. 바르트는 계시가 보존되면 인간이 그것을 소유하고 조종하게 된다고 염려했다. 프레임은 성경에서는 오히려 남아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켰다고 답한다. 잊혔던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자 요시야와 온 나라가 회개했다. 이것이 고백서가 말하는 '육신의 부패에 맞선 확립'의 실례다. 바빙크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기록이 계시를 오래 남고 널리 퍼지게 한다고 덧붙인다.

1. 기록의 네 이유: 보존·전파·확립·위로
2. 계시는 처음부터 대대로 전하라고 주셨다
3. '말로나 편지로' 받은 전통을 지키라
4. 남은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 주권을 지켰다
5. 사람은 말씀을 비틀어도 다스릴 순 없다

> **신명기 31:26**
>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로 삼으라. 확립(프레임)

**신명기 31:10-11**

칠 년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낭독하라. 전파와 공적 권위(프레임)

10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칠 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1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열왕기하 22:8-20**

잊힌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와 나라가 회개함. 보존된 말씀이 배도를 다시 다스림(프레임)

8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9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10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11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2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3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

**데살로니가후서 2:15**

말로나 편지로 받은 전통을 지키라(프레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누가복음 1:3-4**

배운 것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차례대로 씀. 신앙고백서 1.1 증거 구절

3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마태복음 4:4, 7, 10**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로 물리치심. 신앙고백서 1.1 증거 구절('사탄의 악의에 맞서')

**마태복음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5:4 ★**

기록된 것은 교훈과 위로와 소망을 위한 것. [신앙고백서 1.1 증거 구절, 바빙크도 성경의 목적으로 인용]

**이사야 40:8**

풀은 마르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섬. 프레임 16장의 결론 구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 교회를 더 확실히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

## 📜 9. 지금 우리에게 계시는 성경의 모양으로 있다 (바빙크 '기적, 언어, 역사' · 워필드 1장 4~5절 · 신앙고백서 1.1)

계시도 있었다. 둘째는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며 성경과 계시를 떼어 놓는 것이다. 레싱은 이것을 '종이 교황'에게서 해방되자는 말로 표현했고, 바빙크는 이쪽이 훨씬 위험하다고 본다. 계시는 역사이므로 모든 역사처럼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성경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에 대한 앎도 무너지고, 사도들의 말 안에서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사귈 수 없다. 워필드도 신약에서 '말씀'과 '율법'이 기록된 계시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다고 짚는다. 성경은 계시의 기록을 담은 책일 뿐 아니라 그 전체가 계시이며, 오늘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워필드는 그리스도가 계시 그 자체이시고, 그 사실에 성령이 말씀을 더하셔서 계시가 완성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계시가 그쳤다고 말한다. 고백서도 “이전 방식들은 이제 그쳤다”고 한다. 바빙크는 성령이 완성된 계시에 새것을 더하지 않고 그것을 적용하시며, 성경은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맺는다.

1. 계시 = 성경 기록? 기록 안 된 계시도 있다
2. 성경과 계시를 떼는 것이 더 위험하다
3. 역사는 증언으로만 우리에게 온다
4. 계시는 그리스도에서 완성, 그 뜻에서 그쳤다
5. 성령은 새것을 더하지 않고 적용하신다

> **요한복음 21:25**
> 예수님의 일을 다 기록하지 않음. 계시와 기록을 동일시할 수 없다(바빙크)
>
>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 **요한복음 17:20 ★**
>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사도의 말을 거쳐야 그리스도께 닿는다 [바빙크 17:20-21, 프레임 16장 공통]

> **요한일서 1:3**
> 사도들과의 사귐이 곧 아버지·아들과의 사귐(바빙크)
>
>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베드로후서 1:19 ★**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기록된 계시 전체를 가리킨다 [워필드, 신앙고백서 1.1 증거 구절 공통]

**요한복음 7:39**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뒤 성령이 오심. 성자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로 이어진다(바빙크 [105])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계시다." — 바빙크

## 🗣️ 다섯 목소리

| 책 |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한두 문장) | 특별히 강조하는 것 | 비워 둔 것 |
|---|---|---|---|
| 프레임 | 하나님은 사건·말·사람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의 입을 거쳐도 그분의 권위·권능·임재는 줄지 않는다. 진짜임을 아는 최종 근거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자기 증언이다. | 세 매체의 맞물림, 식별 문제, 조건적 예언(요나), 기록의 영구성(바르트 응답) | 이전 계시 방식이 그쳤는가(32장으로 미룸) |
| 워필드 | 계시는 하나님이 덮개를 벗겨 알려 주시는 구원 행위다. 현현·내적 암시·협력 작용 어느 방식이든 순전한 하나님 말씀이며, 그 전체가 이제 | 행위에는 말이 필요함, 선지자의 '지어내지 않는' 수동성과 깨어 있는 지성, 협력 작용, | 듣는 사람이 진짜임을 어떻게 확신하는가(식별·성령의 증언)는 이 장에서 다루지 않음 |

| 책 |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한두 문장) | 특별히 강조하는 것 | 비워 둔 것 |
|---|---|---|---|
| 바빙크 | 계시는 역사이므로 모든 역사처럼 사람의 증언으로만 우리에게 오고, 그 증언이 성경이다. 성경과 계시를 떼면 그리스도도 잃는다. | 기적의 필수성 (사실과 의미 분리 거부), 계시와 성경의 두 오류, 성경은 지금도 살아 있는 말씀 | 선지자 식별 기준·표적 문제는 이 대목에서 다루지 않음 |
| 신앙고백서 1.1 | 하나님은 여러 때 여러 방식으로 계시하셨고, 보존·전파·확립·위로를 위해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으며, 이전 방식은 그쳤다. | 기록의 네 이유, 성경이 '가장 필요함', 이전 방식의 그침 | 매체의 구조, 선지자 영감의 방식, 식별 같은 '어떻게'의 설명 — 프레임·워필드가 메운다 |
| 오웬 | 이 편 재료로는 다루지 않음 — '진짜임을 어떻게 아나'는 이 편에서 프레임 14·15장이 메운다(오웬의 자증 논증은 자증성을 다루는 뒤 편에서) | — | — |

- 프레임은 '매체'라는 틀로 사건·음성·선지자·사도·기록을 한 줄로 꿰고, 워필드는 같은 본문(신명기 18:18, 출애굽기 4장, 예레미야 1:9)으로 그 안의 영감 방식을 정밀하게 다듬는다.
- 워필드는 '말 없는 행위'를, 바빙크는 '사실 없는 의미'를 막는다. 둘이 합쳐 프레임의 “사건과 말은 서로를 해석한다”를 양쪽에서 지킨다.
- 워필드·바빙크·고백서가 비워 둔 “듣는 사람이 어떻게 확신하나”는 프레임 14·15장의 '하나님의 자기 증언'이 이 편에서 메운다. 이것은 뒤 편의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이어진다.
- 프레임이 비워 둔 '이전 방식의 그침'은 고백서 1.1과 워필드(계시의 완성)와 바빙크(새 객관적 계시 없음)가 메운다.

## 📖 용어

**계시**
숨어 계신 하나님이 덮개를 벗기듯 자신과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

**매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게 하는 통로. 프레임은 사건·말·사람 셋으로 나눈다.

**하나님의 음성**
사람 중재자 없이 하나님이 직접 들리게 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말 계시(예: 시내산).

**선지자**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하게 하신 사람. 미래를 미리 말하는 일은 부차적이다.

**사도**
그리스도께 직접 임명받아 그분의 말씀과 부활을 증언한 사람. 선지자의 계승자이자 그 이상이다.

**협력 작용**
성령이 사람의 생각·연구·기억·감정을 없애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일하셔서 사람의 글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방식(워필드의 용어).

**영감 (시리즈 공통)**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불오성 (시리즈 공통)**
하나님의 말씀은 속이거나 틀리지 않으며 틀릴 수도 없다는 성질.

**자증성 (시리즈 공통)**
성경이 다른 근거를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성질.

**성령의 내적 증거 (시리즈 공통)**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시키시는 일.

## 💬 청년의 삶으로

## ✅ 이 편의 결론

- 하나님은 사건·말·사람이라는 매체로 말씀하셨다. 사람의 입을 거쳐도 그 말씀의 권위는 하나도 줄지 않았다.
- 표적과 예언의 성취는 거짓을 걸러 내는 보조 기준이다. 그 말씀이 진짜임을 알게 하는 최종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다.
-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존·전파·확립·위로를 위해 온전히 글로 남기셨다. 남은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지켰다.
-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지금 우리에게 그 계시는 성경의 모양으로 있으며, 성령이 그것을 오늘도 살아 있는 말씀으로 적용하신다.

##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프레임 · 하나님 말씀의 매체
- 프레임 ·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 프레임 ·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선지자와 사도
- 프레임 ·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 워필드 · 제1장 계시에 관한 성경적 개념
- 바빙크 · 4장 계시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